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76호 [주제 제 25419호] 주제 105 (2016)년 10월 2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은 나라 천만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혁명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총매진해나가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영광스럽고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자랑높은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 70돐을 맞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창립후 오늘에 이르는 70년의 장구한 기간 명실공히 창립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대학으로서의 영예를 떨치며 혁명인재육성의 본보기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장식강화되어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왔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성명으로서 하는 긍지높은 력사와 전통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여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 대회가 9월 30일 4.25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에는 특색적인 사회주의교육사상 리론을 내놓으시고 이 땅위에 주체적이면서 인민적인 고등교육과 인재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은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경모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이 굵어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병도사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태양의 존함이 나뉘어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이신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뉘어 있었다.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의 령명이 밝아오는 성지로 빛을 뿌리는 봉남산자리를 형성한 주석단대경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이라는 글씨가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꽃피우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자!》, 《시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나뉘어 있었다.

대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 당, 정권기관, 내각, 상,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대학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 총련조선대학교내대표단과 해외동포들,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외국유학생, 연구생, 실습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김수길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자퇴원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근로단체, 상, 중앙기관 일꾼들, 대학의 품도있는 일꾼들과 교직원, 모범적인 학생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태형철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건강,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쳐준 승리의 진로를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동력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조있는 시기에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을 맞고있는 데 대하여 말하였다.

이날을 맞는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이 땅위에 인민의 첫 대학을 일떠세워주시어 주체적고등교육건설의 위대한 새 력사를 창조하신 백두산집세위원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당의 령도따라 김일성종합대학을 영원히 존엄높은 수령의

대학, 세계일류대학으로 더욱 빛내어나갈 줄라는 결의에 넘쳐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영광스러운 70년 력사는 백두산집세위원들의 품속에서 주체교육과 과학의 최고전당으로 강화발전되어온 자랑스러운 행로이라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대학의 창립자이시며 대학을 주체조선의 국보, 민족의 자랑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 결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던 그때 벌써 주체적이면서 인민적인 고등교육건설의 현대적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건국의 첫 시기부터 여러 부분의 대학들의 모체로 될 종합대학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품소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와 함께 창조무쌍한 봉남산이슬길을 밟으시며 종합대학의 미진을 잡아주시고 새 조국건설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학교사를 훌륭한 임파세워주시었다.

학생선발로부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의 불철기술적도대를 갖추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품소 위촉장을 보내시어 우수한 교육전당도 꾸려주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 35(1948)년 10월 1일 만민민중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되게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고등교육건설의 불멸의 혁명업적의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이 땅에 인민적인 고등교육과 인재강국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창립후부터 107차례나 대학을 찾아주시고 900

여치의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면서 종합대학이 인민의 대학, 혁명의 대학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견을잡을 이끌어주시었다.

대학교과에서 새 조신을 따매고나갈 민족간부들을 키워내는 인민의 대학으로서의 종합대학의 성격과 사명을 뚜렷이 밝혀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걸음을 떼 대학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잡혀나갈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회의 나날에도 불비속을 태치시며 몸소 백승리를 찾으시어 전 시조전에 맞게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고 대학이 전후부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주체혁명을 대학사업의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낮은 교육장제와 수정주의독소를 철저히 뿌리뽑도록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김일성종합대학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공세가 도발되고 안당안혁명공과분자들이 우리 당을 정면으로 공격해나섰던 시련의 시기에도 당과 수령을 믿고 앞장에서 용감하게 맞들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열연의 정을 맺으시고 친어머님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부구건설시기 정무형사보다도 종합대학교사부터 먼저 부구하도록 하여주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새 교과들과 과학도서관, 자연박물관, 체육관용을 창설하여 일떠세워주시어 봉남산자리를 하나의 대학촌으로 번모시게되었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병도하시는 그 치열 마르신 속에서도 깊은 밤, 이문새벽에도 대학에 찾아오시어 학생들의 학습과 생

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돌보아주시고 로학자들의 건강을 녀려하시어 특별치료대까지 세워주시었으며 용당 할 일을 한 교원, 연구사들과 일꾼들에게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고 사랑의 기념사건도 찍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을 김일성종합대학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올수 있게 한 자랑분으로 되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수령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 빛내어주시신 학원한 병도사, 영원한 스승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주체 49(1960)년 8월 1일 해운은 봉남산마루에서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어 태양의 위업을 누리며 떨칠실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모든 대학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도의 천기간 27차례나 대학을 찾아주시고 2,200여명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선군혁명의 핵심기관육성기지로 강화발전시켜주시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성히 모시고 봉남산자리를 당의 유일 사상교양의 거점, 백두산집세위원들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업적이 응축되어 있는 혁명사적으로 완전무결하게 꾸리도록 하여주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대학안에 당의 명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과학기술에 의하여 나라의 흥망이 좌우되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대학에서 교육의 폭을 넓히며 그 길을 마르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석교육과 박사원교육,

부품원 과학연구교육을 강화하여 20대, 30대의 실력있는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도록 혁명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립 50돐을 맞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은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가치로 되었으며 주체 98(2009)년 12월 17일에 보내주신 친필서한 《자기 명예 밭을 불이 고 높은 세기를 보라! 순교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결미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끝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는 세계를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영원한 표대로 빛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70년 력사의 갈피갈피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 뜨겁게 어여웠다.

일찌기 어머니님과 함께 교사건설장을 찾으신 그때로부터 장장 수십년간 종합대학에 특별한 정을 기울이시며 대학촌을 옹근 하나의 선봉관으로 전면시켜주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 뜨겁게 어여웠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이 오늘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의 은택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